

# 秋史 金正喜의 學問과 藝術

梁 淳 秘\*

## I

1986년 7월 9일(음력 6월 3일)은 추사 김정희의 탄생 2백주년이 되던 날이다. 우리 역사상 예명(藝名)을 남긴 사람들이 허다하지만, 추사만큼 그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경우도 드물 것이다. 추사에 대한 연구가 다방면에 걸쳐 국내외 학자들 사이에서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결과 추사는 단순히 금석학자나 혹은 서예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격변의 조선 조 후기를 살며, 이미 설득력을 잃기 시작한 성리학적 세계관과 인간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신문화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한 선각자이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추사의 학문과 예술은 그가 1840년(헌종 6년) 9월에 윤상도(尹尙度)의 옥사에 연좌되어 제주도에서 9년 동안 위리안치(圍籬安置)의 유형을 겪는 동안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며,<sup>1)</sup> 이로 인하여 그 내용과 품격은 더욱 치열해지고 성숙된다.

본고에서는 추사의 생애와 학문 및 예술적 성과를 일반적 입장에서 기술하기 보다는 9년의 제주도 유배생활을 통하여 특징되는 면모를 밝혀보고자 한다. 추사에 대한 일반론적 접근은 기왕의 많은 식자들에 의하여 언급되었기 때문에

---

\* 耽羅文化研究所長, 文學博士

필자가 그것을 다시 써본다 하더라도 정리하는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의 유배문학이라는 전공상의 이유에서도 그렇고, 아마도 추사의 진면목은 제주의 유배생활에서 더욱 드러나지 않았는가 하는 이유에서, 유배를 중심으로 한 추사의 고통 그리고 집념 등을 학문과 예술적 측면에서 간단히 서술해 보고자 한다.

## II

조선조 형률 제도의 하나로서 유배는 그 발생이 주로 정치적 상황인 당쟁에 기인한 것이 지배적이며, 정치를 통하여 참정하고 집권한 자가 정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취해진 행형적(行刑的) 소산이었다.<sup>2)</sup> 이러한 유배는 정치적으로 중죄를 범한 자에게 사형까지는 과하지 않고 원격지(遠隔地)로 보내어 종신토록 다시 귀환하지 못하게 하는 형벌로서, 특히 제주도와 같은 섬에는 죄명이 특별히 중한 자들에게 해당이 되었었다.

당쟁이라는 조선조 특유의 정치적 메카니즘은 우승투쟁(優勝鬪爭)의 성격이 띤 일종의 생존경쟁으로서, 이 경쟁에서 결과된 유배제도는 정치인의 현실에의 집착을 거세시켜 버리고 정치인의 의미성과 존재성을 박탈하는 기능을 하였다. 정권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자 과거시험을 치렀고, 사대부로서 행세하기 위하여 글을 지어 문집을 남겼던 정치인이자 아울러 문인이었던 조선조의 지식인들은 당쟁에 관여한 이유로 유배를 자신들의 정치생활의 한 방법론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배로 인한 외로움과 절망감은 많은 유배자들에게 자기 상실의 고통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재등용(再登用)을 위한 충전(充電)의 기회도 마련해 주었으며, 특히 외로움과 절망을 이겨내기 위하여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제2의 탄생과도 같은 창조적 집념에 생명을 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었다. 이렇듯 원악(遠惡)의 유배지를 오히려 창조적 공간으로 이용함으로써 절망과 외로움을 이겨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추사 김정희였다.

1786년(정조 10년)에 출생한 추사는 경주 김씨의 중심인물로서 어릴 적부터 글씨에 재능이 있었고, 그의 나이 24세에 연경(燕京)에서 금석(金石)의 대가인 웅방강(翁方綱 1733~1818), 완원(阮元 1764~1839)을 비롯한 청나라 학자들의 고증

학적 전통과 교류하여 크게 식견을 넓힘으로써 학문과 예술의 발전적 전기를 맞는다. 특히 옹방강과 완원을 심방하여 많은 서화(書畵)의 진적(眞蹟)을 완상하고, 경학, 금석학, 서법사(書法史) 등의 가르침을 받은 뒤 학연을 맺고서부터 학문과 예술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전개시켰다. 이후 그는 금석학, 경학, 불교학 그리고 시·서·화 등 그야말로 다방면에 걸쳐 배어난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강력한 진폭으로 조선조 후기의 지성계를 석권하는데, 1840년 윤상도 옥사가 재론되기 전까지는 평탄한 출사기(出仕期)를 보내다가, 이 사건으로 그의 나이 55세에 제주도 대정(大靜)에 유배를 가게 된다. 곧 죽음의 길일 수밖에 없었던 제주라는 섬에 안치되는 절도안치(絶島安置)와 유배지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주위에 가시 울타리를 만드는 위리안치(圍籬安置)라는 이중의 가혹한 형벌 앞에 선 종신 무기수로서 9년 동안의 유배를 통하여 추사의 학문과 예술에 있어 가장 중요한 후반생을 맞게 된다.

추사의 생애 후반기에 해당되는 제주도 유배생활은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다른 유배자들에게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추사 또한 비록 불운하게 유배를 당했다고 해도 충남애군의 충정을 토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주도 조천(朝天)의 연북정(戀北亭)<sup>3)</sup> 망경루(望京樓)<sup>4)</sup> 등은 유배자들이 북쪽 왕도를 바라보며 임 향한 일편단심의 충성의 회포를 품던 곳으로, 이런 충성 안에는 반드시 군왕의 재소명(再召命)이나 정치적 동료로부터 추천되길 바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이른바 충(忠)이란 당시에 있어서는 최선의 정치적 이념이었으며 또한 이데올로기였다. 이것은 당시에 있어서는 이미 종파적 교리라거나 일부 사회 계층의 지배원리를 벗어난 조선조 사대부 등의 삶의 준거점이었기에 비록 유배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충성의 회포는 당연한 것이었다. 다만 그런 회포는 유배자 자신의 억울한 일, 비분강개없는 지탱할 수 없는 바를 시문으로 승화시킴으로써만이 가능하였는데, 이런 작업을 통하여 유배자들은 철저히 소외당한 자신을 달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추사의 칠언시 <영주화북진도중(瀛洲禾北鎭途中)><sup>5)</sup> <원소술회(元宵述懷)><sup>6)</sup> 등에서 보이는 군왕에 대한 연모는 그가 다시 총애를 받고자 하는 갈망과 권위에 대한 향수가 짙게 깔려 있다.

다음으로 추사는 지나친 귀소지향적(歸巢志向的)인 태도보다는 일단 유배지의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체념과 적응의 생활태도를 보여 주었다는 점이 또한 특

징적이다. 이것은 물론 원악지 도배인 제주도 유배자로서 추사가 더 이상 조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절도 위리안치의 중형을 받았음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던 탓도 있었지만 추사의 자상하면서도 침착하고 강인한 성품 탓에서도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추사의 제주 대정현 유배생활 9년의 많은 업적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된다. 중형의 유배자의 경우 유배지의 목사나 향리(鄕吏)의 배려로 유폐되는 일을 겨우 모면할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서 유배지의 주민들과의 인간적인 접촉과 교류가 가능했었다. 추사는 이런 기회를 빌어 유배지 주민들과의 흥학교화(興學教化)의 동화를 통하여, 죄수라기보다 타향의 건문을 넓히면서 잠심도학(潛心道學)하며 인격을 수양하고 자기의 때를 기다리는 삶의 한 실됨으로 교육자 또는 자기 완성자로서 많은 성과를 남겼다. 따라서 추사는 유배지 현지에 권위적으로 관계하기보다 현지의 사정과 조화하여 동화함으로써 현지 주민들의 지식과 교양 등을 자극하고 교류하면서 유배지 문화권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71</sup>

마지막으로 추사의 가장 돋보이는 특징은 유배생활을 자기완성을 위한 소중한 창조적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격리되었을 때 사람은 그러한 소외상태에서 이제까지 체험하지 못한 여러가지 것들을 파악하게 되고 그러한 모순에 대한 전체적 극복논리(克服論理)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많은 유배자들이 인고의 유배생활을 서재생활(書齋生活)로 바뀌서 깊은 연구에 몰입하거나 현실을 개혁할 이론을 확립하거나 시문을 쓰는 창조적 계기로 만들었다. 만약 사대부들이 유배당하는 일이 없이 관인(官人)의 행복만으로 살았다면 이런 창조적인 예술활동의 기회가 없이 단순한 관리로 그 생애가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배자들에게 닥쳐온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추방으로 말미암아 유배당한 사대부 지식인들은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사람이며 본질적으로 정치나 관변(官邊)에만 소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추사야말로 그러한 유배생활을 자기극복과 완성의 창조적 공간으로 이용한 대표적인 학자요 예술가였다. 불후의 명작인 <세한도(歲寒圖)>와 독창적인 「추사체(秋史體)」의 완성은 바로 인고의 유배생활을 통한 추사 자신의 마음 속에 응어리진 고독·울분·인내·고통·냉소·좌절 등을 정면으로 받아들여 이상과 연결시키면서 거둔 문화적 승리라고 하겠다. 이밖에 유배생활 3년째 상처(喪妻)로 인한 비통과 절망은 그의 유배의 처절함을 배가시키는 것이었는데, 이때의 심사를 표현한 글이나 부인에게 보냈던 한글 편지 등을 통하여 또 다른 인간적

면모를 보여 준다.

추사는 제주의 배소에서 더욱 더 열심히 학문과 서법(書法) 연구에 몰두하였는데, 말하자면 제주의 유배생활로부터 진실로 추사의 내면적 생활의 심화가 시작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추사에게 있어 이러한 몰두는 유배라는 현실에서 자기를 구제(救濟)하기 위한 최소한의 윤리적 진실성으로서 이 같은 추사의 윤리적 진실성은 그가 유배기간 동안 부인이나 동생 등의 일가붙이에게 보냈던 편지글의 소상함과 자애스러움을 통하여 더욱 드러난다. 윤리적 진실성 위에 섰을 때 사람은 비로소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방법은 대개 현실에서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모색이 되기 마련이다. 대개의 유배자들의 경우 이러한 모색은 실패로 끝나 버렸지만 추사는 어려운 모색의 결정체로서 추사체를 완성시키는데, 곧 추사체는 유배라는 고통을 넘어서는 순수성의 지향점이 되었던 것이다.

추사는 금석의 가치를 서체에 직결시키고 서법연구의 주안점을 금석학에 두고서 서법원류를 밝히며 그 이치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수천 종의 금석문에 기본을 두고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른바 북비파(北碑派)가 서법의 정통이라고 하여 예서(隸書)에서 서법의 근본을 찾았으며, 예서를 익히는 데는 한위육조(漢魏六朝), 그리고 종정고문(鍾鼎古文)을 알지 못하면 그 근본부터 모른다고 말하곤 하였다. 그리고 예서는 필히 방경고拙(方勁古拙)하여야 하며 가슴 안에는 만권서(萬卷書)를 담고 팔뚝 아래 삼백구비(三百九碑)가 들어 있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도 없다고 설파하였다. 그래서 그는 배소인 제주 대정에서 잦은 신병과 싸우면서도 한예(漢隸)의 장점을 모아 스스로 한 길을 터득하고 자신의 독특한 서체를 완성하게 되었으니, 이는 타고난 천품으로 무한한 노력을 거쳐서 이룩한 예술의 정수이다. 그리하여 박규수(朴珪壽)는 추사의 독특한 서체를 「신기(神氣)가 내왕하며 바다와 같고 조수와도 같다. 또한 용이 날아오르고 호랑이가 뛰어오르는 듯하다」<sup>8)</sup>라고 극찬하였는데, 추사는 어느덧 자신의 응골찬 집념을 통하여 유배의 고통을 극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추사가 자신의 독특한 서법의 체득에 더욱 정진할 무렵, 추사는 그의 절품인 <세한도>를 그리게 된다. 그의 회화작품을 통틀어 대표작으로 불리워지는 <세한도>는 공자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위로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가 제주 배소에 있을 때 연경에 머물고 있던 이상적(李尙迪 1804~1865)

에게 그려보낸 일품이다. 이 그림은 이상적이 권세를 따르는 세속과는 달리 문하의 정성을 잊지 않고 어려운 지경에 놓인 추사에게 정성을 다하는 데 감격하여 그의 정성을 세한에 비유한 것으로, 그 화격이나 필의(筆意)가 남종 문인화의 높은 경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겨울 추위 속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서 있는 모습이 황량하고 적막한 가운데 고고한 풍모를 살린 이 그림은 마치 그의 인격을 대하는 듯 간결하며, 배경을 대담하게 생각하고 표현하고자 한 초가와 지조의 상징인 송백(松柏)만을 극도로 압축하여 간결하게 그려내고 있어 어떤 감정이입의 실마리도 마련하지 않고 냉담하다. 이렇게 고도로 추상화된 공간미는 일종의 시적 언어 구실을 하고 있는데, 넓은 공간·송백·팅 빈 오두막은 그의 심경인 듯, 이러한 것들이 유배의 외로움과 절망감을 초월한 무심(無心)의 토로이며 선의 경지라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추사의 이러한 고고한 풍모는 비단 글씨나 그림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 편의 한시에도 어김없이 나타난다. 사실 유배라는 것은 유배자에게 있어서는 악순환의 고통이며 따라서 유배자에게 있어서 시문을 쓴다는 행위는 유배라는 현실적 고통·현실적 피해 의식을 보상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충동인데, 그러나 그 충동은 유배라는 고통스런 현실의 제약을 끊임없이 받기 때문에 유배자의 비극적인 의식의 심도는 깊어지기만 한다. 예를 들어 궁한 사람의 경우는 그 표현이 애절하고 원망스러우며 험하고 피박스럽다(窮人之無所遇於世者 其辭哀怨險僻)는 얘기처럼 대부분의 유배자들의 아픔이나 신상탄(身上歎)이 개인적인 자탄으로 머물고 있는 데 반해,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추사는 유배적 현실을 정직하게 이해함으로써 현실을 극복하는 여유스러움을 보여 준다.

碧海青天一解顏	푸른 바다 푸른 하늘 시름 가지고
仙緣到底未終纏	너와의 선연은 다할 수 없어
鋤頭棄擲尋常物	호미 끝에 버려진 예사론 너를
供養窓明几淨間 <sup>9)</sup>	오릇한 창가에 놓고 기른다.

이 시는 추사의 <수선화(水仙花)>로서 추사의 고고한 현실인식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작품이다. 수선화는 제주 섬 곳곳에 많이 자란다. 골짜기와 발마다에 무성하게 자라는데 도민들은 이것을 잡초로 여겨 보리같이 무렵 호미로 베어

버린다. 추사는 수선화를 상찬하면서도 그 내면에 수선화의 고고한 가치가 인정 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탄하고 바로 자신의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외롭고 절망적인 상황을 수선화에다 비유하여 노래하고 있다. 추사에게 있어서 수선화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세계란 진정한 가치가 구현되어 있지 않은 세계인데, 그러나 그와 그가 갈구하고 있는 세계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단절이 있다. 지루하고 답답하고 숨막힐 듯한 이 단절 가운데서도 추사의 사고는 위축되지도 완고해지지도 않은 채 수선화를 현실의 거짓을 폭로하는 방법적 매개물로 활용함으로써 일단 자신의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를 변호하고 있다.

이 무렵 추사의 학문에 크게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불교인데, 그와 불교의 인연은 이미 선조들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새로운 사상체계를 갈구하던 국내의 흐름으로 학문적인 지식욕에 의해서 불전을 섭렵하게 되고, 청 학계의 불교에 대한 자유로운 학문 연구의 분위기를 체험하고 나서 거리낌없이 불교의 연구에 심취하였던 듯하다. 추사의 불교학에 누구보다도 영향을 끼친 사람은 백파(白坡)와 초의(草衣)로 초의는 추사가 제주도로 유배되었을 때 해남 대흥사(大興寺)에 있으면서 내왕의 편의를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배소를 찾아가거나 서신을 교환하면서 선리(禪理)와 문예 및 다도(茶道)로 더욱 정을 두터이 하였으며, 추사는 배소에서 초의를 통하여 백파와 선논쟁을 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이 추사는 제주에서 쉬지 않고 당대 명승들과 두터운 교류를 갖고 많은 불교서적을 섭렵하여 혜안을 체득하였다. 그는 재래 전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선문(禪門)의 맹점을 파악하여 당시 선문의 종장이던 백파와 선논쟁(禪論爭)을 벌여 선교일치론적(禪教一致論的) 주장을 내세우고 불경 번역의 잘못을 지적하는 등 고증학적인 안목을 보였다.

### Ⅲ

참으로 집요하도록 열심히 살았던 추사의 제주 유배생활은 다방면에 걸쳐 결실을 거두었는데, 이 모든 것은 제주도에 자신이 유배자로 있다는 사실을 자기 보존과 발전을 위하여 받아들이고 심화시켰던 추사의 태도 탓이다. 만약 유배적 상황의 압력에 피동적으로 끌려갔다면 그는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했을 것

임이 분명하다. 추사의 이러한 태도는 제주 배소에서 밖으로 부쳐 보냈던 편지나 배소를 찾아온 제자들에게 들려준 가르침을 통하여 더욱 분명해진다.

추사가 자기의 평생을 걸어서 절묘한 멋을 한국에 이식하고 그 진미를 고양할 당시에 한반도 연안에는 서양배들이 자주 출몰하곤 하였다. 이것은 세상의 변화를 예고하는 사례들이었으며 이에 제주 배소에 머물고 있던 추사는 변화에 대한 남다른 통찰력을 보여 준다. 그러한 통찰력은 실학의 실사구시에 바탕을 둔 근대지향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었으며 차원 높은 사상성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사실 실용의 경세제민 사상, 과학적 신지식, 금석비첩학, 고증사학 등등의 해박한 논리는 그 나름대로 근대화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추사에게 있어 특히 추사의 학문과 예술이 본 궤도에 진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다름아닌 제주에의 유배였다. 제주 유배생활이 있음으로 해서 추사 생애 전기에 마련했던 청대 학예에 대한 수용을 비로소 추사의 몫으로 제대로 꽃피울 수가 있었던 것이다.

註)

- 1) 「憲宗實錄」 권7, 6년 庚子 9월 辛卯條 “鞠囚罪人正喜大靜縣圍籬安置”
- 2) 拙稿, 「朝鮮流配文學研究 - 濟州島를 중심으로 -」 建國大博士學位論文, 1982. p.11 참조.
- 3) 金錫翼, 「耽羅紀年」 宣祖32년條 “重修朝天館 雙碧亭 改題戀北亭”
- 4) 趙貞喆, 「靜軒瀛海處坎錄」 권4, 望京樓條
- 5) 「阮堂先生全集」 卷10, 詩.
- 6) 前掲書, 卷10, 詩.
- 7) 拙稿, 「朝鮮流配文學研究」, pp.22~24 참조.
- 8) 朴珪壽, 「朴珪壽全集: 韓國近代思想叢書」 亞細亞文化社, 影印本 1978.
- 9) 「阮堂先生全集」 卷10, 詩.



〈資料〉

## 秋史 金正喜先生 紀績碑文

朝鮮王朝 後期 經學者로 考證學과 金石學 등을 兼備한 秋史 金正喜 先生은 實學을 일으키고 書畫藝術에 功績을 쌓은 先驅者였다. 正祖 10年(1786) 6月 3日 禮山 龍宮里에서 吏曹判書 金魯敬과 杞溪俞氏 사이에서 태어나 月城尉邸 名門의 代를 이었다. 本貫은 慶州이며 字는 元春 號는 秋史 阮堂 등이다.

어려서 朴齊家에 師事받아 北學의 淵源을 이었고 純祖 9年 生員試에 入第 34歲에 文科에 及第한 後 여러 品職을 거쳐 兵曹參判에 이르는 동안 燕京을 往還하며 阮元·翁方綱 등 鉅儒 碩學들과 交遊講論함에 그들로부터 經術文章이 海東第一이라는 稱讚을 받았다. 淸朝文物과 南北金石 등을 探究 還國하여 新羅 眞興王 巡狩碑의 發見은 先生의 金石學 業績의 하나이다.

先生의 天性은 恒常 溫和하나 大義를 論함에는 春秋正論을 서슴지 않았으니 先生의 思想은 聖賢同歸로 昇華하였다. 후진 양성도 게을리 하지 않았으니 門下에 申觀浩, 趙熙龍, 李昆應, 閔奎鎬, 趙必鎬, 李尙迪, 許維, 南秉吉 등 많은 門人을 길러내었다.

憲宗 6年 宦海의 逆流에 휘말려 濟州 大靜里 謫所에서 9年, 咸鏡道 北靑에서 2年 前後 10餘星霜의 謫居生活을 오히려 學門과 書畫研究로 自我를 完成하여 後世에 巨人의 度量을 보여 주었다. 詩文은 安神에 이르고 書畫은 많은 名品과 書論을 남겼다. 永字八法은 그 중의 하나로 宇宙 易理法에 始終하였으며 筆法에 金剛杵法과 墨法에 烟火氣法 등은 次元 높은 論理를 바탕으로 不朽의 名作 不二禪蘭은 形外의 眞을 찾고자 絶叫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또한 酷寒에 靑靑不變하는 松栢에 比하여 歲寒圖를 그리고 題詩를 통하여 선비정신과 師弟의 義를 일깨우는 萬古의 名作도 남기시었다. 이러한 業績이 있어서 先生의 글씨를 秋史體라는 固有名詞로 最高의 尊尙을 하게 되었다.

先生은 空門之交로 草衣意恂과 白坡瓦礫 등 禪師들과 禪理를 探究하고 法相哲學을 論爭하여 儒家 經學家로 破格的인 例外를 남기기도 하였다.

三綱을 人間根本의 源으로 생각하는 儒敎社會에서 儒佛로 통해 본 率性의 道와 見性의 念으로 殞命 三日前에 쓰신 이 곳 修道山 奉恩寺의 大雄殿과 板殿扁額을 마지막 絶筆로 남기시고 哲宗 7年 (1856) 丙辰 10月 10日 果川 寓舍에서 逝去하시니 天壽 71歲이었다. 幽宅은 故鄉인 禮山 龍宮里 先塋下로 모시었다. 靈魂은 이 곳에 가끔 들러 지난 歲月을 새겨보시리라. 이로부터 130년이 흐른 今年은 先生께서 誕生하신 200周年이기도 한 오늘 (6月 3日) 夜半을 지새우는 子

規가 소리로 應하니 後學諸生들도 和하여 古今이 트였도다. 그 氣運이 우뚝 솟아 不死鳥처럼 날으니 오늘의 同學들은 先生을 追慕 宣揚함이 絶頂에 이르렀도다.

이에 先生의 人品과 學德 그리고 藝術世界를 기리고 또한 이 곳 奉恩寺와의 關係를 記述하여 誕生 200周年을 紀念하는 紀績碑를 세우기로 奉恩寺 邊密耘 住持와 秋史體研究會 金應燮 會長이 뜻을 모아 글을 請하니 이 事業을 諮問한 人士의 芳名과 함께 猥濫되이 적으니 先生의 偉業은 이 땅에 永遠한 빛이 될 것을 믿는 바이다.

文學博士 濟州 梁淳冕 謹撰                      金海 金應燮 謹書  
 修道山奉恩寺·祖室 朴映岩·住持 邊密耘·總務 金大雲 共立  
 秋史體研究會·顧問 金 鍵·顧問 尹吉重·會長 金應燮

西紀一九八六年 丙寅 六月 三日

諮問委員

權寧遠	金炳三	金在淳	朴權欽	徐英勳	孫權培
孫錫佑	宋志英	安甲濬	安東濬	柳一洙	尹相在
尹泳煥	尹準模	李恒寧	李憲琦	鄭相九	鄭漢模
鄭熙彩	洪鍾旭				

秋史體研究會員任員

金濬元	金龍泰	崔正秀	閔胤植	白海天	金德鉉
朴鍾善	金應鳳	林仁煥	權寧燾	李鍾承	印達煥
尹大鉉	申道植	尹永昌	白龍欽	金東鮮	全昌奎
吳亨祿	文基性	林石圭	鄭源萬	尹鳳淳	趙成國
鄭東岩	金載完	朴平秀	文日洙	李奉昊	金炳琦

\* 본 碑文은 縱書로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橫書로 조판하였고, 그 소재는 서울 특별시 강남구 奉恩寺이다.